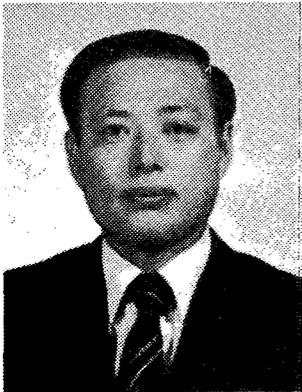




最上의 올림픽環境을 보면서



崔信濂 / 環境庁 公報官

역사적인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실로 우리민족의 영광이며 긍지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대회는 50억 地球村 人類의 和合의 聖典이며, 東西間의 이해와 우의를 다짐하는데 있어서도 이처럼 돋보이는 대회는 일찌기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문헌에서의 악몽과 LA나 모스크바의 동강난 올림픽을 상기한다면, 사상 유례없는 最多참가국들이 모인 올림픽이 된 것은 참으로 우리政府의 노력이 컸음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올림픽이야말로 아마추어精神 그대로 “勝利가 목적이 아닌 參加에 意義가 있다”는 올림픽精神이 꽃피는 성공적인 행사라는 점에서도 地球村 모든 人類가 공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된다.

더우기 강대국도 아닌 약소국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가난과 分斷과 전쟁이라는 질곡속에서 몸부림치던 한국이 거듭나는 모습으로 아시아의 大國으로 성장하면서 이같은 제전을 개최하고 있음을 볼 때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올림픽이 유치된 후에도 “한국이 올림픽을 과연 치룰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던 많은 서방인들에게 응답이나 하듯이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이 장엄한 행사를 치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긍지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구름을 가르고 나온 햇빛처럼 세계인들의 가슴에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줄 것으로 확신된다.

일찌기 「토인비」가 아시아의 수개국중 단 일민족으로 멸망되지 않고 5천년의 긴 역사를 이어온 韓國을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말했듯이 韓國民의 위대한 低力을 자랑할 만한 시점

에 와 있다 하겠다. 또한 이처럼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함에 있어서 정부나 국민이나 모든 단체들이 제각기 맡은 분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며 점점함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올림픽을 개최하게된 이면에는 環境문제를 걱정하는 국민과 밤낮없이 環境管理에 종사하는 일선 環境人들의 노고가 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環境廳도 올림픽을 유치한 그 날부터 “쾌적한 環境속에 성공적인 올림픽개최支援”이라는 대명제하에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기간동안 良好한 環境속에 올림픽을 치루도록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다.

예를들면, 경기장, 선수촌, 마라톤코스에 정밀점검을 한다든가, 가스상 오염물질을 LA나 멕시코나 東京의 수준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유지토록 하기위해 都市大氣汚染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했다. 즉, 먼지 저감대책, 배출업소 지도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LNG 공급, 저유황유 공급 확대, 저공해자동차생산, 무연휘발유 공급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대기오염 자동감시체제의 운용, 소음, 악취대책 등 이루 설명할 수 없을만큼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수질문제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점검단속과 水營灣요트 繫留場의 수질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중변소의 수세화 및 정비, 주요관광지 쓰레기 처리대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점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협조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環境管理人이라든가 기업주의 높은 환경보전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다. 또 가정에서도 합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일을 비롯해서 연탄사용의 억제에 이르기까지 협조하였으며, 특히 대회기간중 자동차 격일제 운행에 있어서도 서울시민이 자진 참여한 사례, 수영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 釜山시민의 높은 환경의식등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조성에 한마음으

로 동참했던 사실은 참으로 흐뭇하고 보람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國民과 企業과 政府가 三位一體가 되어 가장 쾌적한 환경 속에서 대회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볼 때 우리의 환경문제는 그다지 크게 걱정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앞에 놓인 과제는 올림픽 이후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올림픽 이후의 우리사회는 산업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더욱 번영된 모습으로 선진국대열에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될때 지금까지 감내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의 욕구가 더욱 분출될 것이며 보다 나은 人間다운 良質의 삶을 추구하게될 것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2천년대의 경제사회적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21세기를 행한 환경보전장기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국민과 기업의 협조와 동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올림픽에서 보여준 환경보전 의식처럼 이 정신이 더욱 확산되고 지속됨으로써 우리가 염원하는 公善로 찌들지 않은 살기좋은 금수강산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